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수도권 이전 추진 확정

광주·곡성공장 축소? 지역민 촉각

금호측 "세계시장 공략위한 프로젝트"

금호타이어(주)가 광주공장(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중앙연구소의 수도권 분할이전 추진 방침을 확정해 직원들과 지역민들이 전체 공장이전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노조측은 연구소 이전이 광주와 곡성공장의 축소 또는 중국 이전을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을 1천200여명까지 확충, 세계 타이어 시장점유율을 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 고용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노조측은 현재 진행중인 임금협상안에 '연구소의 수도권 이전 반대조항'을 삽입, 기자회견 및 박람회 광주 시장 면담요구 등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침밥 먹으세요"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용순) 직원들과 광주YWCA(회장 김갑숙) 회원들이 22일 광주진흥중학교 학생들에게 김밥과 식혜를 나눠주며 '우리쌀 사랑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 상장사 1분기 영업

1,000원어치 팔아 70원 남겼다

영업이익 전국 평균 못미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은 올해 1분기에 1천원 어치를 팔아 70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 23개 상장기업의 '2007사업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01%로 전년 동기대비 0.9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매출액은 7.98% 늘어난 반면 순이익은 -0.60% 줄었다. 지역 상장사들의 분기 순이익이 급

'차세대 융합기술' 국내외 특허 20건 출원  
광주 바이오광 연구 큰 성과

광주시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과 함께 광기반 차세대 융합기술 개발사업의 하나인 바이오광 기반기술개발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될 이 사업에는 광주시·전남대·동양하이테크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 48억원을 포함해 72억3천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바이오광기반기술개발사업단(단장)은 바이오광의 원천과 응용기술 개발, 산업화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단계(2004~2006년) 사업에서는 형광·발광등의 기술을 이용한 세포 및 생물공정 모니터링 바이오센서 개발, 바이오칩 개발을 위한 바이오광 소자·재료에 관한 연구, 바이오광 신호측정,압세포 초기탐지 및 진단기술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종일 개발사업단장은 "일련의 연구와 관련해 이미 20건의 국내의 특허를 출원·등록했고, 149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을 발표했

▲바이오광(BioPhotonics)= 빛을 이용해 생명체의 구조나 특성 등을 연구하는 신기술을 말하며, 광산업 뿐 아니라 의료산업, 식품·바이오산업, 환경산업, 전자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을 정도"라며 "특히 석사 32명과 박사 5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2007~2008년) 사업은 1단계에서 개발된 바이오광 소자, 재료, 공정, 계측 요소기술을 이용해 지역내 산업체와 공동으로 바이오광 시스템의 통합 및 응용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형기우 동양하이테크 대표는 "관련기술을 선점할 경우 수조원의 기간장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연구소단지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경쟁력 약화 해외확장 탓"

굿모닝신한증권 진단

굿모닝신한증권은 22일 기아차가 확장전략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영환 애널리스트는 "기아차가 해외판매 확대에 주력했던 시절 경쟁심화, 가격경쟁력 약화로 영업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했지만, 전략적 판단기로서 회사는 확장을 선택했다"며 "이는 운전자금부담 확대와 수익성 약화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특히 기아차의 확장 후유증은 매출채권 회전율(할인

잔액 포함)에 잘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2003년 7.3회이던 매출채권회전율이 200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06년말에는 4.0회로 낮아졌고, 본사의 매출채권부담은 해외판매법인의 재고자산 부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아차의 전략 변경에도 해외법인 재고와 본격적인 축소세로 돌아서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우수한 재무역량과 그룹 내 회사의 전략적 지위를 감안하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는 별개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어등산 현진에버빌' 572세대 분양

(주)현진은 광주시 하남지구에서 '어등산 현진에버빌'아파트 572세대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9개 동에 ▲40평형(184세대) ▲43평형(252세대) ▲49평형(92세대) ▲58평형(44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780여평의 선큰가든과 휘트니스센터, 필살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하남지구는 학교, 주거지, 하천, 공원을 도보로 연결하는 30만 평 규모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된다. 단지 앞으로는 무진로와 흙플러스가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전세대 남남배치와 필로티설계, 3면 개방형 발코니 등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모델하우스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으로, 23일 문을 연다. 문의 062-361-8008. /최경호기자 choice@

"지역민 손해없게 부동산 공정 평가"

조계영 한국감정원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재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조계영(49) 한국감정원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한국감정원은 지난 38년간 부동산 평가, 보상평가, 부동산 컨설팅, 공동주택 조사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며 "그동안 쌓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재산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또 "국내 감정평가시장이 완전자율 경쟁체제인 만큼 고객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기본이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경영혁신과 고객 만족 경영을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목포지점장과 광주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영업정지 대운상호저축은행 '예아름'으로 새출발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4개월 만인 오는 28일부터 (주)예아름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에 들어간다.

2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예아름저축은행이 대운저축은행의 자산을 인수해 25일부터 광양 본점과 광주·순천지점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예아름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가교은행(Bridge bank)으로 이미 경기도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을 인수·운영 중이다. 예아름저축은행은 5천만원(원리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한해 광주지점은 다음달 8일까지, 광양과 순천지점은 다음달 22일까지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필수기자 bungy@

Advertisement for WAW Camp/연수 (WAW 캠프/연수) featuring English camps and study programs.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urriculum,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WAW Camp.

Advertisement for Gallery RODEM, a furniture store specializing in high-quality, imported furniture.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furniture pieces like sofas, dining tables, and beds, along with promotional offers and contact details.